

겨울철 재난 대비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전북교육청, 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 운영 실내 적정온도 유지·기관별 안전점검 실시 등... 학생안전 확보·시설 피해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및 기관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인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르면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은 2025년 3월 15일까지다. 주요 안전관리 대책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기관별 안전점검 실시 △학생 행동요령 교육 및 매뉴얼 숙지

△기상특보시 학사운영 검토 △대응 체계 정비 등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대책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상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를 통해 학생안전 확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단계별 대응체계를 정비해 비상단계별 상황에 맞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교육부·교육지원청·각급학교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상황보고체계를 구축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겨울철 재난대비 상황관리를 위해 사소한 위험요소라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예방조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30~31일 '전주교육나눔한마당'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기)은 오는 30~31일 이틀간 영재교육원 일원에서 '2024 전주교육나눔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주교육나눔한마당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수업 중심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실천 사례를 나누는 소통의 자리다.

1부는 30일 오후 2~4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혁신센터장 임철일 교수의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교육 방향'을 주제로 한 강의가 마련됐다.

2부는 놀이 교육, 개념기반 탐구수업, 전주다움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AI 디지털 수업, 2022 개정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 전북미래학교, IB 교육, 독서교육, 영어중점학교 등 학교 교육활동 사례나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31일에는 전주다움배움터, 학교 밖놀이터,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35개의 체험 전시 부스도 운영된다.

김경기 교육장은 "전주교육나눔한마당은 관내 교원들에게 유용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교육 사례를 일반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내실 있는 진로·진학 교육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진로교육협의회 발족식 및 위촉식'이 열렸다.

진로교육 활성화·체계적 지원 돕는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진로교육협의회' 발족... 진로진학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진로교육협의회 발족식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진로교육협의회는 전북 진로교육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는 운영임 교육국장장과 유호선 중등교육과장이 당연직으로,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병철 전북특별자치도의

회 교육위원, 박세훈 전북대 명예교수, 임은미 전북대 교수, 김의숙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정유미 남원서진여고 학부모, 정진철 군산여고 교사, 이주미 남성고 교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에 대한 안내, 진로진학상담센터 구축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위원장인 교육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와 조례 제정으로 모든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과 진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전대 진로취업지원센터

제2차 학생 모니터링위원회

전주전대대학 진로취업지원센터는 28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2차 학생 모니터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 모니터링위원회는 재학생과 진로취업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부서가 진로·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참여 위원 및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의견 청취와 함께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현재에 있는 취·창업시장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학생을 비롯한 유관센터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센터별 지원 사항 안내 및 2학기 진행 프로그램 안내, △각 센터별 1학기 진행 프로그램 환류 및 관련 사항 의견 수렴, △진로·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학생 건의 사항 등 의견 수렴 및 환류는 세 가지 안건으로 진행됐다.

조덕현 산학협력처장은 "학생 모니터링위원회 및 교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나은 진로·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 인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역량을 발휘해 나갈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드론 체험 교육, 지역 고교와 함께

전북대, 전주고에서 '제2회 찾아가는 창의인재 드론 부트캠프'

드론국가자격 조종자 취득 과정·스피드드론 체험 등 3가지

전북대학교 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강승희)이 '제2회 찾아가는 창의인재 드론 부트캠프'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8월에 진행된 체험행사의 연장으로 도내 고등학생들의 체험 활동과 참여교사들의 학생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주고 강당에서 드론 분야 전문 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교사 30명 대상의 드론국가자격(4종) 조종자 취득 과정과, 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한 드론축구공 제작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스피드드론·배틀드론 체험교육을 통해 드론 제작과 조종법을 익히고,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 편집 기술 등의 교육을 통해 향후 진로 개척과 실생활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이날 스피드드와 배틀을 겨루는



전북대학교 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지난 26일 전주고등학교 강당에서 '제2회 찾아가는 창의인재 드론 부트캠프'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회 드론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실력을 발휘한 3명의 교사에게 상상을 했다.

강승희 사업단장은 "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저변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며 "이를 계기로 항공·드론과 같은 첨단분야의 다양한 체험을 전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농식품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농식품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원광대 대학일

자리플러스센터가 주관하고, 고창영선리플러스센터가 전북대RIS혁신사업본부, 상하농원 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농식품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상하농원에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친환경 농법을 활용한 작물 관리 △구근류 식

재 작업 △수목 및 초화류 이식 작업 등 3개 분야 실무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였다.

특히 교육 수료 후에는 상하농원 조경팀에서 인턴십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아 평가를 통해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미취업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전문 상담사로부터 입사지원서 및 면접 컨설팅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비전대학교가 지난 25일 'RISE-UP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주비전대학교 제공)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적합 융합인재 양성

전주비전대, 'RISE-UP' 발표회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5일 'RISE-UP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는 RIS 사업 자율과제인 '교육혁신 AI·디지털융합 인재 양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 참여 학생들은 도내의 IT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에듀테크 서비스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발표회에서 총장상을 수상한 LE Audio 활용 유치원 아동 관리 서비스는 유아교육기관 실내·외 활동 시 집단 이탈 등의 위험 상황에서 경고 알림 및 위치 인식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사 1인이 다수의 아동에게 동시에 음성 안내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특허출원을 앞두고 있다.

양시내 총괄책임 교수는 "2024 Vision EXPO RISE-UP 발표회를 통해 RIS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우수한 역량을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AI 중심 디지털 대전환(AI) 시대에 적합한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RIS사업 자율과제 '영유아 교육혁신 AI·디지털융합 인재 양성'은 유아교육과와 컴퓨터정보과 학생들 및 교수들이 산학체 전문과와 함께 협력해 AI·디지털 역량을 배양하고, 유아교육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영유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사업에는 AI 미디어 크리에이터, AIoT 메이커 프로젝트, XR 콘텐츠 제작 등 비교과 과정과 디지털터러시 함양 캠프, 코딩 자격 취득을 위한 부트 캠프, 도내 유아교육기관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전주시 가족센터 위탁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통합 내년 개소

연간 190억원씩 5년간 1000억, 전문가족복지서비스 '새 지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5년 간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전주시 가족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됐다.

전주시 가족센터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전문 가족복지서비스 기관이다. 현재 전주시가 이 두 센터를 통합, 운영할 새로운 전주시가족센터 건물을 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전주시는 최근 가족센터 위탁을 위한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연간 약 190억원씩 5년 간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사회복지학과 및 BK21사업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적극 접목해 가족문제 예방과 기능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사업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1인가구와 노인가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 가족센터는 전문 가족복지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서비스와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등 전북대가 보유한 역량을 적극 접목해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가족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족센터사업단장인 운영교수(사회복지학과)는 "가족을 둘러싼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맞춤 서비스 제공과 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촘촘하게 연결짓는 사회적 돌봄지원 체계의 징검다리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가족센터는 2025년 1월 1일 개소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경쟁률 2.7대 1

전주교대 전주부설초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2.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6대 1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립 초등학교로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28일 전주교대부설초에 따르면 지난 21~25일 남녀 각 30명씩 총 6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160명이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남학생은 30명 모집에 86명이 지원해 2.9대 1, 여학생은 30명 모집에 74명이 지원해 2.5대 1로 나타났다.

한편 전주교대부설초는 11월 6일 신입생과 12월 11일 전입식 추첨식을 진행해 합격자를 발표한 후, 2025년 1월 6일 신입생 예비소집을 거쳐 3월 4일 입학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